

# 돼지해에 돌아보는 돼지 땅이름(1)

배우리 부회장  
(한국 땅이름 학회)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일컬어 ‘간지(干支)’라 한다.

간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 곳은 <통감외기(通鑑外記)>인데, 천황씨(天皇氏)의 12 사람이 각각 1만8천년씩을 이 세상을 다스린 뒤, 반고씨(盤古氏)가 그 뒤를 잇게 되었는데, 천왕씨 때부터 간지를 세우고, 역수(曆數)상에 배열하였다고 한다. 이 때의 간지는 고갑자(古甲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기를 전후하여 간지가 사용되었다. 이 간지는 그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일상 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새해가 되면 으레 올해는 간지로 무슨 해이며, 또 무슨 띠의 해인가를 먼저 따져 보게 되고 점술가들은 그 해의 길흉화복도 이 간지를 토대로 하여 따져 보곤 한다. 또, 나이를 말할 때도 이 간지가 흔히 이용되기도 한다. 갑술생이니 을해생이니 하여 생년(生年)을 간지로 말하기도 하고 좀 비슷한 나이끼리는 돼지띠니 말띠니 하여 누가 순위인가를 가름해 보기도 한다.

을해년인 올해는 십이간지(十二干支)를 볼 때 열두 동물 중 돼지에 해당하는 해이다.

지난 해는 갑술(甲戌)년으로, 개해였다. 그런데, 개가 너무 날뛰었던지 다른 해에 비해 유달리 큰 사고가 많았다. 그러나, 돼지해인 올해에는 돼지가 개처럼 마구 뿔 일도 없어 사고도 안 나고 뭔가 좀 좋은 조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1. 돌아지-도야지-돼지

일부 지방에서는 ‘돼지’를 ‘도야지’라고 하는데, ‘돼지’라는 말은 이 ‘도야지’가 줄어서 된말이다. 즉, ‘도야지’란 말을 짧고 쉽게 하다 보니 ‘돼지’란 말로 된 것이다.

‘도야지’란 말은 ‘돌아지’가 변해 된 말이다.  
돌오지→도야지→도야지

이 ‘돌아지’란 말은 ‘돌의 새끼’란 뜻인데, ‘돌’은 ‘돼지’의 원래 말이다. 그래서, 옛 문헌에는 ‘돌’이 또 ‘돌’으로 나오기도 한다.

\* ‘현무문 두 돌이 한 살에 맞으니’

<용비어천가> (43장)

\* ‘돌가히 단니는 파이러니’

<법화경언해> (2-169)

\* ‘돌 시(豕)’ <훈몽자회> (상19)

\* ‘쇼와 양과 돌티라’ <소학언해> (2-33)

‘도야지’란 말의 원천이 된 ‘돌아지’에서 ‘아지’는 ‘새끼’의 뜻이다. 지금의 ‘송아지-망아지-강아지’ 등의 말도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다. ‘송아지-망아지’의 옛말은 ‘송아지-망아지’이다. 그보다 더 오래 전의 옛말은 ‘쇼아지-마아지’이다. ‘개’의 옛말은 ‘가히’인데, 여기에 ‘아지’가 붙어 ‘강아지’가 되었다. 따라서 돌+아지’에서 나온 ‘도야지(돼지)’는 원래 ‘새끼돼지’를 의미했던 것이다. 옛 사람들은 돼지를 주로 식용으로 키워 왔던 관계로 돼지의 몸집이 자꾸 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돼지를 ‘새끼’의 의미로만 새겼던 듯싶다.

「멧돌 잡으려다 집돌까지 잃는다.」

이 속담은 멧돼지까지 잡으려다가 집돼지까지 잃는다는 말로, 지나친 욕심은 이미 가진 것도 잃게 한다는 뜻이다. 옛 사람들은 이처럼 ‘돼지’

를 '재물'의 상징으로 여겼다.

## 2. 돼지에 관한 속담들

돼지의 조상은 멧돼지(산돼지)이다. 현재 전 세계에 1천여 품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 우리 나라에 있는 것이 90여 종쯤 된다.

돼지는 고깃살이 많은 데다 사납지 않고 잡기도 쉬워 우리 조상들은 이를 사냥감의 주대상으로 삼았다.

우리 겨레가 돼지를 집에서 기른 것은 약 2천년 전으로 추측되는데, <삼국지> 등에 그 기록이 있다. '부여조'에는 '저가(豬加)'라는 관명이 나오고 '한조'에는 (우리 겨레가) 소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찍부터 이처럼 돼지를 즐겨 기른 것은 이 동물이 다른 동물에 비하여 체질이 강하고 어느 정도의 악조건에도 견뎌 내는 힘이 있으며, 다산성(多産性)인데다가 잡식성이고 살이 잘 찌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점 때문이었다.

집에서 길러 온 돼지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장에 따라선 그 고장 특유의 품종도 이루어 놓았다.

경북 김천의 '지례돈(知禮豚)', 경남 사천의 '사천돈(泗川豚)'은 좋은 품종의 돼지로 알려져 왔다. 이들 품종은 전엔 독특한 형태를 간직했으나, 지금은 외래 품종과 섞여 혈통이 흐려졌다. 제주도에서는 20여년 전만 해도 각 집마다 뒷간이나 우리에서 거의 1마리 이상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생활 모습이 많이 달라져 이제는 돼지 키우는 집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예부터 돼지를 많이 길러 온 만큼 돼지에 관한 속담도 무척 많다.

「애들을 돼지새끼 나 놓듯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돼지가 새끼를 무척 많이 낳기 때문에 나온 말임.

「돼지값은 칠푼, 나무 값은 서 돈」이란 말은 본일보다 부수적인 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 쓰는 말이다.

좋은 일 생길 때는 「돼지꿈 꾸었다」는 말을 많이 쓴다.

흉이 많은 사람이 흉 적은 사람을 탓할 때는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 나무란다」고 하고 제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돼지 우리에 주석 자물쇠」라는 말을 쓴다.

「돼지가 흐린 물 좋아한다」는 말도 있는데 지저분한 것은 지저분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다.

아이들이 옷을 자주 더럽힐 때는 옛 사람들은 「돼지밥을 잇는 것이 네 밥을 잇기보다 낫다」고 했다.

염치없이 음식을 탐하는 사람을 보고는 「파리한 돼지 두부 앗은 날」이란 말을 쓰고 듣기 싫게 소리를 낼 때는 「돼지 먹 따는 소리 낸다」고 한다. 그리고 킁킁하게 쉰 목소리를 보고는 「모주 먹은 돼지청」이라고 한다.

## 3. 가장 많은 돼지 땅이름은 '돼지골'

오랜 옛날부터 돼지를 가축으로 많이 이용해 온 만큼 우리 나라 곳곳에는 돼지에 관한 땅이름이 무척 많다. 확실한 조사는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는 약 2천 정도의 돼지 땅이름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돼지 땅이름 중 흔한 것은 '돼지골'이나 '돌골'인데, 충북 청주시의 서문동, 경북 문경군 호계면 선암리, 경북 경주군 양북면 용동리 등 82 곳에 이런 땅이름들이 있다. 골짜기나 마을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땅모양이 돼지 모양이거나 돼지를 많이 기른 곳 또는 돼지가 많이 잡힌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땅이름은 한자로는 '저곡(猪谷)', '저동(猪洞)'으로 쓰고 있다. 경남 진양군 진성면 이천리, 전남 승주군 해룡면 농주리 등의 '돌골 뚝골(猪谷)'은 멧돼지가 살던 골짜기였다.

'돼지바우'도 꽤 많은 땅이름 중의 하나다. 서울 관악산 성주암 앞, 인왕산 중턱, 전북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경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등 58 곳에 이런 이름이 있다.

그 모양이 돼지 모양이라고 해서 '도야지배미(돼지배미)'란 이름의 논이 있는 곳도 많은데(11 곳), 경남 통영군 옥지면 두미리,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등이다.(다음 호에 계속)